

시니어 메이저 우승 최경주 “올해 목표 100% 달성했다”



중장년층에 동기부여·젊은 세대에 자극 준 올해는 감사한 시즌 2025년 목표는 500경기 출전·아들 강준 군과 동반 투어 출전

‘한국 골프의 전설’ 최경주(사진)의 인생은 도전의 연속이다. 전남 완도에서 역대 선수를 하던 그는 골프 선수의 꿈을 안고 상경했고 남들이 말리던 미국에 진출해 ‘꿈의 무대’인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8승을 거뒀다.

2011년에 달성한 PGA 투어 8승은 올해 2월 마쓰야마 히데키(일본)가 9승째를 거두기 전까지 아시아 선수 최다승 기록으로 남아 있었을 정도로 독보적이었다.

올해 54세인 그에게 ‘도전’이라는 단어는 이제 안 어울릴 것 같지만 최경주는 올해 5월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SK텔레콤오픈에서 투어 최고령 우승 기록을 세웠고, 7월에는 메이저 시니어 대회인 더 시니어오픈을 제패했다.

2024시즌 공식 대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일 귀국한 최경주를 13일 서울 용산구 최경주재단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두 차례 큰 우승을 달성한 2024시즌을 돌아보며 “제가 선수 생활을 하면서 연초에 ‘올해 이런 성과를 내겠습니다’라고 기도한 내용의 100%가 맞아떨어진 한 해”라고 자평하며 “굉장히 감사한 시즌이고, 또 내년이 기대되는 결과였다”고 말했다.

만 50세 이상 선수들이 경쟁하는 PGA 챔피언스

투어에서도 상금 순위 10위를 목표로 세워 7위(163만1257달러·약 22억원)에 올랐다는 것이다.

최경주는 “2007년에 메모리얼 토너먼트와 AT&T 내셔널에서 우승했을 때가 정규 투어에서 제 선수 생활의 하이라이트”라며 “그런데 제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가치로 따지면 올해 비중이 더 큰 것 같다”고 비교했다.

그는 “제 나이에 SK텔레콤오픈 우승을 한 것이 저와 비슷한 나이 분들에게 동기 부여가 됐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골프의 가치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또 젊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더 관리도 잘하고, 분발해야겠다’는 마래지향적인 자극을 준 것 같다”고 밝혔다.

또 7월 유서 깊은 영국 커누스티 골프 링크스에서 열린 더 시니어오픈에서 남자 선수는 최초로 두 자릿수 언더파로 우승해 강렬한 발자국을 새겼다.

2008년 설립한 최경주재단도 그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자랑이다.

특히 선수 생활 전성기에 재단을 세워 주변에서는 ‘선수 생활하기도 바쁘는데, 이거는 나중에 해도 된다’는 만류가 많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경주는 “고기를 잡으려면 때에 맞춰 그물을 던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주위를 살폈다”며 “재단 일은 제 아내가 많이 도와줘서 가능하기도 했지만, 저도 경기에 영향을 받을 것 같았으면 시작도 안 했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골프 선수로 이를 짓는 다 이룬 최경주지만 아직도 도전할 것이 남아 있다.

먼저 PGA 투어 500경기 출전이다.

이 기록에는 2개 대회가 남았고, 올해 더 시니어 오픈 우승으로 2025년 디오픈 출전권을 획득해 1개 대회만 더 나가면 500회를 채울 수 있다.

현재 700개 대회를 나간 선수들이 역대 최다 대회 출전 상위 10위권 정도에 해당한다.

또 2남 1녀의 아버지이기도 한 그는 막내 강준 군과 함께 투어 대회에 출전하는 장면도 기대한다. 미국 듀크대 3학년인 강준 군은 영문 이니셜도 ‘K.J’로 아버지와 같다.

최경주는 “12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조로 나가는 이벤트 대회 PNC 챔피언십에 출전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강준이가 대학교 졸업하고 프로가 되려면 2년 반 정도 남은 만큼 그때까지 저도 투어에 나갈 수 있는 경기력을 유지하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골프 명예의 전당도 장기적으로 최경주가 도전하고 싶은 목표 가운데 하나다.

최경주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가라’는 뜻의 ‘(Go)다. 가려면 움직여야 하고, 발로 뛰어야 하는데 나도 완도에서 광주로, 광주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미국으로 가면서 살아온 인생이다”며 “일단 움직여보면 거기서 또 그 과정에서 나오는 삶의 가치를 알게 되고 생각도 바뀌는 법”이라고 이야기했다.

연합뉴스

‘신 빙속여제’ 김민선, 4대륙선수권서 폭풍질주 스타트

비시즌 ‘팀 골드’서 훈련 병행 스피드스케이팅 女 500m 1위 목표

‘신(新) 빙속여제’ 김민선(25·의정부시청·사진)이 2024-20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4대륙선수권대회를 시작으로 새 시즌 국제대회 일정을 시작한다.

김민선은 15일부터 17일까지 일본 아오모리현 하치노헤시 YS 아레나에서 열리는 4대륙선수권 대회에서 정상을 향해 힘차게 출발한다.

그는 16일 여자 500m, 17일 여자 1000m 종목에 출전해 비시즌 훈련 성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민선은 비시즌에 소속팀 의정부시청과 전문 국제훈련팀인 ‘팀 골드’에서 훈련을 병행했다.

‘팀 골드’는 요한 더빗, 예룬 뢰벨트 등 네덜란드 코치진이 지도하는 국제훈련팀으로 일본의 여자 중장거리 최강자 다카기 미호, 중국 여자 중거리 에이스 한메이 등이 속해있다.

올해 한국에서 헝가리로 귀화한 ‘빙속 괴물’ 김민선 역시 팀 골드의 일원이다.

김민선은 약점으로 지적되어온 스타트와 지구력 향상 훈련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빙속 대표팀을 관리하는 대한빙상경기연맹도 김민선의 해외 훈련에 협조했다.

4대륙 선수권대회는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4개 대륙 선수들이 출전하는 메이저 국제대회다.

4대륙 선수권대회를 마친 뒤엔 일본 나가노로 이동해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2024-2025 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1차 대회에 출전한다.

김민선은 올 시즌 여자 500m 1위 탈환을 목표로 삼았다.

그는 2022-2023시즌 월드컵 시리즈에서 주 종목 여자 500m 랭킹 1위를 차지했지만, 지난 시즌엔 에린 잭슨(미국)에 이어 랭킹 2위로 밀렸다.

시즌 초반 스케이트 적응 문제로 고전한 탓에 간



발의 차이로 1위를 내줬다.

올 시즌엔 초반부터 메달 색깔을 노린다는 계획이다.

한국 빙속 대표팀의 셋배 이나현(18·한국체대)도 기대주다.

이나현은 올해 1월 2023-2024 ISU 월드컵 5차 대회 여자 500m에서 37초34의 주니어 세계기록을 세운 최고의 유망주다.

최근 국내 대회 여자 500m에선 주요 선수들을 제치고 우승하는 등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였다.

이나현은 대표팀 선배인 김민선과도 선의의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헝가리로 귀화한 김민선은 월드컵 1차 대회를 통해 복귀할 예정이다.

김민선은 귀화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현지 이름 ‘올리버’로 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오일 머니’ LIV 골프, 2025년 한국서 개최

5월 인천 잭 니클라우스 골프 클럽 앤서니 김·디샬보·람 등 출전 기대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이 후원하는 LIV 골프가 2025년 한국에서 처음 대회를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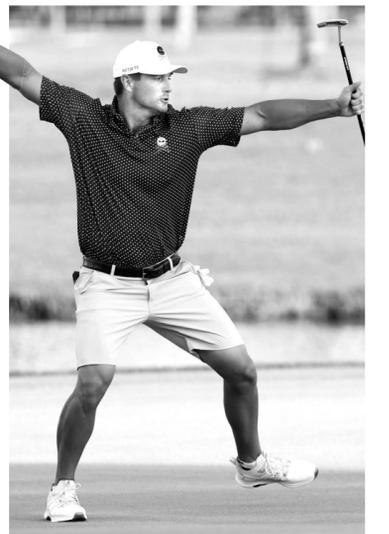
LIV 골프가 지난 13일 발표한 2025시즌 일정에 따르면 2025년 5월 인천의 잭 니클라우스 골프 클럽 코리아에서 첫 한국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회 일정은 2025년 5월 2일부터 사흘간이다.

2022년 6월 출범한 LIV 골프는 브라이슨 디샬보(미국·사진), 세르히오 가르시아, 온 램(이상 스페인), 더스틴 존슨, 필 미컬슨, 브룩스 켈카(이상 미국) 등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속해 있다.

교포 선수 앤서니 김, 케빈 나(이상 미국), 대니 리(뉴질랜드)도 현재 LIV 골프에서 뛰고 있다.

LIV 골프 대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2025년 이 처음이다.

LIV 골프 대표이사인 그레고 노먼(호주)은 “LIV 골프는 전 세계에서 규모와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2025년 한국 대회 개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말했다.



LIV 골프 2025시즌은 2025년 2월 6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에서 개막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테니스 동호인들 강진서 기량 겨룬다

16~17일 강진청자배 전남·광주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호남 테니스 동호인들이 ‘스포츠 도시’ 강진에서 뽐낸다.

오는 16~17일 강진테니스장과 보조경기장에서 제24회 강진청자배 전남·광주 생활체육 테니스대회가 열린다.

강진군이 주최하고 강진군테니스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남자오른부·여자신인부·남자일반부에 총 350여명이 참가해 고고 달은 실력을 펼

치게 된다.

이번 대회에는에선 조별리그 1, 2위가 본선 리그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모든 경기는 광주·전남 생활체육랭킹구경에 따른다.

각 부문별 1·2위와 공동 3위에 대한 시상식이 이뤄지며, 상패와 상금이 지급된다. 8강에 오른 팀에는 팀당 시상품이 수여된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조조선섬유조형회 특별전
: 엮고 물들여 쌓은 아름다움으로 위로하다

일시 : 2024-11-1(금) ~ 2024-12-1(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2024 광주상설공연(11월)
일시 : 2024-11-02(토) ~ 2024-11-30(토)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 11.15(금) 오후 7시 기획공연
(청년국악 힐링 콘서트)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2024 광주상설공연(11월)
일시 : 2024-11-02(토) ~ 2024-11-30(토)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 11.15(금) 오후 7시 기획공연
(청년국악 힐링 콘서트)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